

BTS 정국 '세븐', 빌보드 글로벌 4주 1위 ... K팝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 데뷔 싱글 '세븐' (Seven)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과 '글로벌' (미국 제외)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

15일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세븐'은 이 두 차트에서 전주에 이어 1위를 지켰다.

'글로벌 200' 과 '글로벌' (미국 제외)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긴 차트다. 이들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은 K팝 가수로는 정국이 처음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 '세븐'은 2020년 9월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가 신설된 이래 4주 연속 1억회 이



▲ BTS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Seven)' 홍보 이미지, 사진=빅히트뮤직

상 스트리밍된 최초의 곡이 됐다"고 소개했다.

'세븐'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전주보다 순위가 두 계단 상승한 28위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뷔의 첫 솔로 앨범 선공개곡 '러브 미 어게인' (Love Me Again)과 '레이니 데이즈' (Rainy Days)는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에서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지민의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 (Like Crazy)는 '글로벌' (미국 제외) 41위, '글로벌 200' 64위로 20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 '페이스' (FACE)도 '월드 앨범'에서 11위로 20주 연속 진입했다. 이는 K팝 솔로 가수 최장기 진입 기록이다.

밴드 '더 1975', '남성 멤버 간 키스'로 거액 손해 피소

'브리티시 록'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을 듣는 영국 밴드 '더 1975' (The 1975)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공연에서 남성 멤버 간 키스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미국 음악매체 롤링스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음악 축제 '굿바이브스'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는 더 1975를 상대로 1,230만 링깃(약 266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더 1975의 프런트맨 매튜 힐리는 '굿바이브스'에



▲ 더 1975의 매튜 힐리(왼쪽)가 말레이시아 공연중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성애 규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남성 멤버에게 키스를 하고 있다. 사진=detik.com

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성애 규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남성 멤버에게 키스를 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더 1975의 무대 이후 일정이 남아 있음에도 페스티벌을 취소시켰다. 항후 말레이시아 내 더 1975 공연도 금지했다.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으로, 행위 등은 중범죄에 속한다. 이에 따라 더 1975의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1975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밴드다. 이들은 이번 말레이시아 페스티벌 사건 이후 예정됐던 대만, 인도네시아 공연을 취소했다.

LA에 에스파 뜨자 1만명 한국어 떼창



▲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공연하고 있는 에스파. 사진=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LA 콘서트로 첫 미주 투어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에스파가 13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Crypto.com Arena)에서 연 '에스파 라이브 투어 2023 : 싱크 : 하이퍼 라인'인 LA (aespa LIVE TOUR 2023 'SYNK : HYPER LINE' in LA)에는 약 1만명이 운집했다.

이번 공연에서 에스파는 '블랙 맘바' '넥스트 레벨' '새비지' 등 히트곡을 비롯해 총 25곡을 비롯해 신곡 '베터 싱스(Better Things)' 첫 무대를 선보여 주목 받았다.

SM은 "관객들은 오프닝부터 기립한 채 무대를 열정적으로 즐겼으며, 한국어 떼창과 멤버들을 향한 애정 가득한 한국어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에스파를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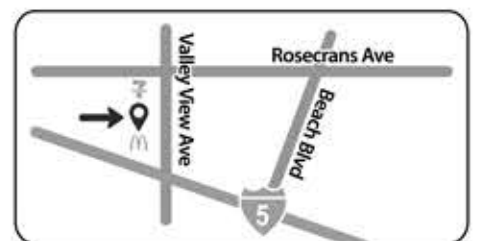
에스파는 이번 LA 공연을 시작으로 18일 델러스, 22일 마이애미, 25일 애틀랜타, 27일 워싱턴 D.C, 30일 시카고, 9월 2일 보스턴, 5일 브루클린 등 미국 8개 도시를 돈다. 같은 달 8일 멕시코 멕시코 시티, 11일 브라질 상파울루, 14일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 25일 독일 베를린, 28일 영국 런던, 30일 프랑스 파리까지 남미와 유럽 주요 도시 6곳을 순회한다.

OFFICE RENT 오피스 렌트 (라미라다,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밸리뷰와 로즈크랜스 코너

- 989 sqft.
- 2룸 2층
- 교통 편리



<전화문의>

949.501.8555

Leah Ivy Chang Realtor